

이 력 서



이 름	노가영		
생년월일	1990.05.15	나이	33 세
휴대폰	010-9497-1626		
E-mail	8457397@naver.com		
주 소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학력사항

재학기간	학교명	전 공	졸업구분
2009.03 ~ 2012.02	한양여자대학	국제관광과	졸업

경력사항

근무기간	회사명	직 위	담당 업무
2021.01 ~ 2022.03	신흥에이이씨	사원	제조업
2014.06 ~ 2019.01	플로렌스	사원	ERP 관리, 사무직
2010.04 ~ 2012.05	큐브아코라	주임	ERP 관리, 사무직

대외 활동 및 교육사항

교육기간	교육명	교육내용	교육기관
2022.06 ~ 2022.10.26	웹디자인 및 스마트 UI/UX 웹 퍼블리셔 과정	웹디자인 및 스마트 UI/UX 웹 퍼블리셔 과정	이젠컴퓨터 아카데미 화곡점

SKILL INVENTORY

사용 기술	수준	사용 기술	수준
MS Office	상	한글	상
HTML/HTML5	상	CSS3 / SASS	상
JavaScript	중		

자기 소개서

성장과정	<p>저는 어려서부터 대외 활동을 좋아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긴 시간을 아니지만, 아르바이트를 시작함으로써 많은 사람과 팀을 이루어 소통하며 일하였고 협력 그리고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대학 진학 후 학업과 일을 병행 하면서 바쁘지만, 사회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 주로 서비스직에 종사하면서 ERP 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고 다른 소프트웨어도 사용해보면서 IT 쪽으로 호기심이 생겼고, IT 계열 직업을 찾아보다가 퍼블리셔라는 직업을 알게 되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행동력과 열정은 회사에 많은 부분에 기여할 것입니다.</p>
성격의 장단점	<p>가장 큰 장점은 호기심입니다. 저는 배우고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해소할 때까지 그 것을 파고드는 것이 있고 한번 배우면 그것을 능숙하게 해내려는 의지도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IT 계열에서는 저의 호기심과 의지가 앞으로도 새로운 것을 접하고 배우는 업무에 탁월하다고 생각하며, 공감 능력이 좋아 다양한 성향의 분들과 대화하고 공감하고 교류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동조할 줄 알며 어떠한 단체의 흐름을 깨지 않고 잘 스며드는 편이라 회사 업무 분위기에 시너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 제가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p> <p>단점은 걱정이 많은 편이라 무엇을 시작하면 완벽해질때까지 체크하고 여러 번 확인을 많이 해 시간적으로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을 위해 업무를 숙달하고 능숙하게 될 때까지 노력하고 있으며 동료들에게 배우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p>
경력사항 (경력없으면 교육사항)	<p>UI/UX 웹 퍼블리셔 수업 수료 중 시맨틱 마크업으로 HTML 태그로 문서를 작성방법과 웹표준, 웹접근성에 대하여 공부 하였습니다.</p> <p>수업 중 팀 프로젝트를 참여함으로써 팀을 구성하고 역할을 나누고 역할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모르는 부분도 서로 보완해 나가며 IT 프로젝트는 혼자가 아닌 팀워크가 중요하고 팀이 잘 어울려졌을 때 프로젝트의 업무 퀄리티가 높아 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개인 자신의 역할도 책임감 있게 마무리를 지어 가겠다고 생각하며 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p>

**지원동기 및
입사후
포부**

UI/UX 웹 퍼블리셔 수업을 수료하며 시맨틱 마크업으로 HTML5 태그로 문서를 작성하고, CSS 로 디자인을 넣고, JavaScript 를 사용하여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제작 할 수 있으며, 완성 되어가는 웹 페이지를 보며 뿌듯한 마음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귀사에 입사하여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며 이런 저의 의지 및 열정과 함께 역량 발전으로 성과를 창출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입사 후 바로 같은 업무를 하는 선배와 동료들에게 업무의 배움을 통해 습득하고 빠르게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될 것이고,

첫째로 선배와 동료들에게 업무로 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배움에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셋째 저의 실수에 대한 조언을 노하우에 대한 배움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인정하고 습득을 하겠습니다.